



가나아트 서울과 부산 갤러리에서 개인전 《하쿠나 마타타》를 동시에 갖는 사석원이 자신의 작품 《왕의 귀환》앞에 서 있다. 이진한 기자 magnum81@chosun.com
동영상 chosun.com

“굴하지 말고, 쿨하게 살자”

아프리카 동물들이 건넌 충천연색 희망… 사석원 개인전 ‘하쿠나 마타타’

화가 사석원이 3년 만에 갖는 개인전 《하쿠나 마타타》에는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동물들의 긴장과 생명력이 느껴진다. 사자와 코끼리는 여유로운 듯 어슬렁거리지만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열목말은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사석원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케냐와 탄자니아 접점의 마라강(江)에서 ‘순식간에 생사(生死)가 왔다갔다하는 상황’을 보게 됐다. 수백만 마리의 소떼가 마라강을 건너 풀밭을 찾아가야 하는데 강에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다. 소떼를 이끄는 우두머리 소가 며칠을 고민하다 도강(渡江)을 결정하고 물에 뛰어들면 수백만 마리가 뒤를 따른다.

“소뿔처럼 용감하게, 거북이처럼 묵묵하게
 ‘두려움의 강’ 건너는 모든 이들에 박수를”

일부는 강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일부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져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일부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죽지만 대부분의 소들은 강을 무사히 건너 삶을 이어간다.

작가는 마라강의 장면을 지켜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고뇌할까’ 생각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했다. 작가는 작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칠판에 쓰고 싶은 내용을 쓰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바(아빠) 엄마’ 등 서툰 한국어로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작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필로 쓴 칠판 위에 이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위무하듯 유희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 작품 《왕의 귀환》을 보면 강 속에는 물고기와 함께 악

살스럽게 그린 악어가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를 굳게 다문 왕의 굳은 표정에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두려움의 강을 용감하게 건너는 모두가 왕(王)이 되는 것이다.

사석원은 아프리카의 동물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작품에 담았지만, 시선은 결국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매일같이 야단맞던 작가는 학창시절 탁구 특기생을 거쳐 동국대 미술학과(한국화 전공)에 입학했다. 작가는 졸업 후 화실을 열어 수험생에게 임시 미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1988년 사석원은 “미래엔 안 되겠다”고 생각해 틈틈이 그렸던 작품들을 용달차에 싣고 서울 인사동 가나화랑을 찾았다. 작품들을 다시 싣고 돌아갈 용달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작가는 “화랑에서 내 작품이 나쁘다고 하면 인사동에 다 버리고 올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가나화랑의 이호재 대표가 사석원의 작품을 사주면서 그는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제목인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걱정 말라’는 뜻으로, 올해 50세를 맞는 사석원의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 뒤섞인 심경을 담은 듯하다. 작품 《석양의 치타》를 보면 치타가 한가롭게 서 있는데 물의 반쪽을 찾을 수 없다. 작가는 “없어진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진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석원이 그린 부엉이((《홍매와 부엉이》)와 거북이((《사막을 건너는 거북이》)는 화가(畫家)로서 작가의 본신이다.

전시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02-720-1020)에서 3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산 가나아트(051-744-2020)에서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열린다. **손정미 기자 jimson@chosun.com**

미술소식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틀리에 705’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양화가 남관의 《신비로운 색채와 구성의 깊이·그림》전(展)을 연다. 진화숙 대표는 “선생이 60년대부터 작고하시기 전까지 남긴 드로잉과 유화 20점을 모았다”고 밝혔다. (02)572-8399

■‘스타&블루 아티스트 호텔 아트페어’가 25-28일 서울



선에는 작가의 붓끝이 무르익어 자유로운 선과 여백을 펼쳐 보이고 있다. 박노수 화백의 작품에는 한명의 소

년과 한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시루에 휩쓸리지 않고 이상(理想)을 지향하고자 하는 작가의 염원을 나타내

고 있다. 전시는 4월 18일까지 열린다. 관람료 2500~5000원. (02)2022-0600 **손정미 기자**

투명한 靑… 아늑한 白… 농익은 線

박노수 화백 회고전
 ‘봄을 기다리는 소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노수-봄을 기다리는 소년》(展)은 한국화가 박노수(朴魯壽·83) 화백의 대규모 회고전이다.

박 화백은 1945년 청전 이상범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1946년에는 서울대 미술학부에 입학해 한국화를 전공했다. 195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작품 《선소운(仙簾韻)》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1956년에는 국전 추천작가가 되었다. 이화여대를 거쳐 서울대 미대 교수로서, 이중상

·이철주·김병중 같은 제자를 가르쳤다. 박 화백은 한국화에서 채색화의 대표적인 작가였고, 그에게 배운 이중상 화백은 “선생님에게 채색을 배우면서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노수 화백이 구사했던 선(線)과 군청색, 여백의 조화를 즐길 수 있다. 박 화백은 “군청색은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들이 피하기 때문에 더 즐겨 썼다”고 밝혔다. 나무 끝에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청정한 숲에서 무념무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다.

전시는 크게 4개 섹션으로 나뉘는데 제1섹션은 1950년대 박 화백이 대

상의 외적 묘사에 집중했던 시기를 보여준다. ‘선인(仙人)이 부르는 피리소리’라는 뜻의 《선소운》에서는 신여성이 입은 한복의 주름을 통해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제2섹션의 주제는 무념무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월하(月下)의 허(虛)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수화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던 작가의 노력이 배어 있다. 작품 《백로(白露)》는 날아가는 새를 통해 생명과 정신적 충만감을 묘사했다. 제3섹션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준 산수화가 등장하는데, 동양화의 전통적인 화제(畫題)를 택하면서 표현은 현대적 감각을 수용한 작품들이 나왔다. 제4섹

동아시아研 연속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

“민족주의+세계주의 꿈꾼 ‘20세기 복합론’… 21세기, 뒤늦은 성공을 기대한다”

하영선 교수 강의 요약

국제정치학자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연속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3월 3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 매주 월·수 오후 6시)이 열린 수강 열기 속에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조선일보 후원으로 지난 17일과 22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좌의 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지성인 김양수와 안재홍이었다. 하 교수가 직접 정리한 강좌 요지를 소개한다.

■김양수의 미(未)완성 ‘식민지 국제정치학’ 20세기 초·중반 언론인·기업인으로 활동했던 김양수(1896~1969)는 잊혀진 인물이다. 더구나 그가 남긴 국제정치 시론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다. 1924년 ‘개벽’에 실린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를 비롯한 몇 편의 글을 찾아서 소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지금부터 꼭 100년 전 ‘국제정치적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35년 만에 ‘국제정치적 출생’의 기쁨을 맞이했다. 1차 세계대전 후 새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정치학이라는 새 학문이 탄생했듯이 한국도 국망(國亡)의 비극에서 국생(國生)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 국제정치학의 탄생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한국 국제정치학은 황무지였다. 식민지에서의 해방은 국제 군사역량의 결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필요한 도움

을 받으려면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를 제대로 읽고 그 속에서 마·일 관계를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김양수 ‘식민지 국제정치학’
 식민지 시대, 환상에 젖었던 국제협조주의 허구 꿰뚫어 세력균형주의 최초 분석도

1920년대 국제협조의 허상 속에 마·일 전쟁은 물론,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말 세계공황에 따른 세력자본주의의 붕괴를 낙관했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오판했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공과 함께 수많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논객들이 전황

(轉向)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한반도는 충분한 준비 없이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을 맞았다.

김양수는 당시 영국과 일본의 주류 담론이었던 국제협조주의의 허구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세력균형을 위한 1922년 워싱턴회의가 불러온 마·일 간의 각축 가능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국제협조주의라는 구심력과 세력균형주의라는 원심력의 동학(動學)이라는 흥미 있는 틀로 읽어보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다. 1920년대 중반 짧은 기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국제문제 논설을 썼던 김양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5년간 유학생과 언론인 생활을 한 후 귀국하여 기업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국제정치 시론을 쓰지 않았다. 그의 노력은 짧고 미완성이었지만 식민지 시기 수많은 시론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하다.

■안재홍의 실패한 ‘20세기 복합론’ 민세 안재홍(1891~1965)의 20세기 복합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1920년대의 신간회, 1930년대의 민세주의,

안재홍의 ‘민세주의’
 “죽은 한국이 살기 위해선 개인我 벗어나 인류야로… 국제적 민족주의 절실”

해방정국의 신민족주의가 모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복합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해서 민세의 실패는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세(民世)라는 아호는 국망의 아픔을 예민하게 겪은 안재홍이 유학 중인 동경에서 ‘민중의 세상’으로 나간다는 뜻으로 스스로 붙인 것이다. 죽은 한

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개인我(我)를 벗어나서 사회我, 민족我, 인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지 민중의 세상에 행복이 있을 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민세주의를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했다. 3·1 운동 후 일본 문화정치의 유혹 속에서 친일파 외에 민족주의의 우파들이 자치론을 내세우면서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의 계급투쟁 노력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두 세력 사이에서 조선일보 주필 안재홍은 신간회 총무간사로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좌파의 사실상 중앙당으로 키워보려는 노력을 시도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의 반발로 결국 해체의 운명을 겪게 된다. 1931년 만주사변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식민지 민족주의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30년대 전후의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선진 강대국들이 국제협조주의보다



영은미술관 제공
 우루과이 작가 이그나시오 이투리아의 《길 위에 멈춤》.

가혹한 현실위에
 환상을 덧칠하면

라틴아메리카 미술
 영은미술관 ‘열정’展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영은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라틴아메리카의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열정》전(展)을 열고 있다. 영은미술관 박선주 관장은 “그동안 국내에 라틴아메리카 미술이 과소평가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베네수엘라·에콰도르·우루과이·콜롬비아·쿠바·파라과이·파나마 등 7개국 작가 17명의 회화와 조각·설치 작품 80여점이 나왔다. 우루과이 작가인 이그나시오 이투리아는 특별코너로 마련됐으며, 그의 대작들은 1층 전시장에 걸려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했던 이투리아는 당시 상황을 암시하듯 암갈색 톤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작품 《흔들리는 물》은 낡고 더러운 세면대가 수영장으로 변해 있음을 통해 가혹한 현실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며, 《위대한 경주》는 벤치 대신 선(線) 위에 앉은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위태로운 삶을 표현했다. 현재 주한베네수엘라 공사인 다니엘 브리세뇨는 이상(李箱)의 시(詩)를 주제로 한 〈시인을 해부하다〉를 비롯해 〈왕후의 사리〉 등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조니텔 멘도사는 인간의 다층적인 내면을, 에콰도르의 페르난도 토레스는 색(色)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 파나마의 오스발도 에레라 그리함은 같은 자연을 서로 얼마나 다르게 인지하는지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열정적인 색과 함께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화면이 인상적이다. 전시는 4월 25일까지. 관람료 3000~4000원. (031)762-4137 **손정미 기자**



김양수

안재홍

개별국가주의로 환원하는 속에 민세는 ‘안’의 복합론에 이어 ‘밖’의 복합론을 다시 전개한다. ‘세계로부터 조선에’와 ‘미레로부터 급일에’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복합한 민족적 국제주의 또는 국제적 민족주의의 형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기적같이 찾아온 해방정국에서 민세는 식민지시기에 문화무대를 중심으로 펼칠 수밖에 없었던 민세주의를 다시 한번 정치무대까지 확대했다. 그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주의를 복합화한 신민족주의를 해방한국이 나아가야 할 지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싸우면서 풀어야 할 국내외의 상대역량들을 제대로 못 다루고 민세주의를 추진할 중앙당 건설에 실패했다. 이제 21세기 한반도는 뒤늦은 민세주의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